

-(이)나마

아쉬운 대로, 그것이나마

바라던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을 나타냅니다. 이 급에서 가장 격식적인 표현으로, 말보다 글에서 만날 가능성이 큼니다.

■ 결합 방법

명사 종류	형태	예
받침으로 끝남	-이나마	조금이나마
모음으로 끝남	-나마	잠시나마
자주 함께 쓰는 말	조금, 잠시, 이것	이것이나마
문체	격식, 겸손	기부, 사과, 머리말
쓰지 않는 경우	넉넉한 양	많이나마는 어색함
중립적인 형태	(이)라도	물이라도 드세요

■ 언제 쓰나요

받침 규칙은 익숙한 그대로입니다.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에는 이나마,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에는 나마를 붙입니다. 조금이나마, 잠시나마.

의미에는 항상 부족함의 뉘앙스가 담깁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—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.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이라고 하면 '조금은 많지 않다'는 인정의 느낌이 사라집니다.

그래서 이 표현은 겸손하고 격식 있는 말에 속합니다. 기부, 조의, 사과, 머리말 등에서 쓰며, 글이나 정중한 말에서는 흔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드뭅니다.

넉넉한 것에는 쓸 수 없습니다. 많거나 만족스러운 양에 붙이면 조사 자체의 의미와 모순됩니다.

■ 예문

- 1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- 2 잠시나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.
- 3 이것이나마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4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.
- 5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.
- 6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.

■ 비교

(이)라도

둘 다 '적어도 이것만이라도'라는 뜻이지만, (이)라도는 중립적이고 일상적입니다. (이)나마는 더 많지 않다는 아쉬움을 더하며 격식 있는 말에 속합니다.

물이라도 드세요. (물이라도 마시라는 권유) /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. (적지만 도움이 되기를)

(이)나

형태는 비슷하지만 느낌은 반대입니다. 숫자 뒤의 (이)나는 기대보다 많은 뜻이고, (이)나마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.

세 시간이나 잤어요. (세 시간씩이나 잤다) / 잠시나마 쉬었어요. (잠깐이지만 쉬었다)

밖에

둘 다 부족함을 나타내지만, 밖에는 불평하는 느낌이고 (이)나마는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느낌입니다.

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. (겨우 세 시간 잤다) / 잠시나마 잘 수 있었어요. (잠깐이지만 잘 수 있었다)

■ 주의

✗ 잠시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.

○ 잠시나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.

잠시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나마만 붙입니다. 이나마는 조금이나마처럼 받침 뒤에 씁니다.

✗ 많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○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이 조사는 부족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. 넉넉한 양에 붙이면 모순이 됩니다.

✗ 야, 이것이나마 먹어.

○ 야, 이거라도 먹어.

(이)나마는 격식 있고 겸손한 표현입니다. 친구 사이에서는 (이)라도가 자연스럽습니다.